주요 관광지 무료 WIFI 시설 구축

익산시, 테마여행 사업 일환 스마트가이드 플랫폼 운영

외국인의 경우 단말기 언어설정에 따라 관광정보 제공

익산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에 무료 공공 WIFI 시설을 구축하고 스마트가이드 플랫폼을 운영한다.

익산시가 대전광역시, 공주시, 부여군 등과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에 무료 공공 WIFI 시설을 구축하고 4개 지자체의 관광거점 실시간 관광객 현황, 지역 소비현황 등을 분석하는 스마트가이드 플랫폼을 운영한다.

익산시의 WIFI 시설 구축 장소는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보석박물관, 교도소세트장, 웅포캠핑장 등 4곳으로 관광객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인터넷설정에서 #FREE WIFI TOUR IKSAN을 선택하면 해당지점에서 무료로 WIFI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단말기 언어설정에 따라 해당 언어로 관광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관광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정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4개 지자체 통합홍보플랫폼 구축에 따른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시간 관광지 관광객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이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비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유입인구의 소비현황 및 특성, 축제·이벤트 개최에 따른 관광객 추이 변화와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관광 빅데이터 구현을 통한 효율적인 관광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4월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 무료 공공 WIFI를 구축한 데 이어 앞으로 관광지에 공공 WIFI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스마트 관광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장애인 가구 집수리 봉사 이웃사랑 실천

익산시 인화동행정복지센터 · 전대흥 주민자치위원장

익산시 인화동행정복지센터와 (동장 나은정) 전대흥 주민자치위원장이 관내 장애인가구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사랑을 실천해 칭송이 자자하다.

대상가구는 뇌병변 장애가 발생해 탁소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고 세탁소 뒤쪽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추운 겨울날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공간에서 연탄난로를 피워놓고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상태였다.

또한 이 세대는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는 편마비가 있어 수리 대상가구로 추천받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기도 한 전대흥 위원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주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 것.

대상가구 조 모씨는 "도배와 장판이 찢어지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많이 있어 지저분했었는데 방안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체해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대흥 주민자치위원장은 평소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본인이 직접 도배, 장판업을 하면서 십여 년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및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어려운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해석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지원을 발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하여 살기 좋은 인화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보건소,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팀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무의도서 5개소, 농촌지역 경로당 50개소, 전통시장 5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진료업무팀 4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진료'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도서지역에 여객선과 선외기를 이용해 방문하여 445명의 주민들에게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비약품과 만성질환 치료약품, 소독제, 연고류 등을 증상에 따라 지급한다.

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일하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해 시 전통시장 5개소 출장방문, 건강 상담과 기초검진을 10회 실시해 425명의 상인들에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입소자 중 한방진료를 원하는 환자 195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이동진료 성과는 시민들은 물론 진료 수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더욱 내실 있는 이동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보건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8일 문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공무원 20여명은 지역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육현장인 군산시내 모 도서관을 방문했다.

문동신 군산시장, 민선6기 마지막 간부회의

교육현장 방문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동력 강화

문동신 군산시장이 지난 12년의 시정운영을 마무리하는 민선6기 마지막 현장간부회의를 열었다.

8일 문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공무원 20여명은 지역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크고 작은 교육 사업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의 동력을 강화했다.

먼저 군산시립도서관을 방문해 독서문화공간을 둘러보고 향후 추진될 동부권 및 옥구도서관, 개정동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동신 시장은 "취임 당시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함께 가는 도서관이 집 가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도서관 기반 확충에 노력하다 보니 임기 중 3개의 공공도서관과 14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됐다"며 "도서관은 정보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끊임없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생학습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군산시평생학습관을 찾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어린이부터 노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시장은 "시정의 주요시책인 비문해 ZERO 학습도시 조성사업은 문맹률이 제로가 될 때까지 멈춰선 안된다"며 "단순히 읽고 쓰기의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동신 군산시장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정업무에 공백 및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 접수

익산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아동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대상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접속하면 소득 인정액 간편계산기로 아동수당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려 행정복지센터가 번잡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익산시가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 유도와 함께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535개소다.

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의 적합 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와 세대수 불법증설 여부,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과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사항의 경우 건축주는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공사 감리자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사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재우 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불법 건축행위 근절과 건축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와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대행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공공체육시설 4곳 인조잔디 교체

익산시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익산중앙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4곳의 인조잔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체육시설은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바닥재를 인조잔디로 사용해 왔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결과 익산중앙체육공원을 비롯 함열아사달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등 4곳 인조잔디 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교체를 추진했다.

시는 사업비 12억5,8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확보,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을 교체 완료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단체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의 시험·분석을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 /익산=우병희 기자